

따오르는 **STARTUP** 더일러스트앤아트(주)

식물로 마음 잇는다...‘보태니컬 아트’로 융합교육 선도



광주창경센터 ‘리본 창업’ 참여 세밀화교육 첫 발
맞춤형 체험 교재·클래스 등 개발...굿즈 판매도
20~25일 성과공유회...“교육 플랫폼 확장 목표”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예술로 마음을 전하는 공간’. 더일러스트앤아트(주) (The Illust and Art·대표 최지연) 회사명에는 이런 의미가 담겼다. 지난 2022년 10월 문을 연 더일러스트앤아트는 식물을 소재로 한 ‘보태니컬 아트’ (Botanical Art)를 활용해 교육 콘텐츠·교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단순 식물 그림을 그리자는 제안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사훈을 내걸고 컬러테라피, 컬러링, 인문학, 도시농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를 결합해 문화예술 교육·전시·출판·굿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서양화를 전공한 최지연 대표는 학생시절 입시미술학원 전임강사로 근무하며 학생을 지도했다. 이후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하면서도 한국보태니컬아트 협동조합 창립멤버로 활동하며 경력을 이어왔다.

사업을 고민하던 찰나, 그의 눈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리본(RE-Born) 희망 창업지원’이라는 현수막이 들어왔다.

최 대표는 장정을 살려 보태니컬 아트를 사업 아이템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는 경험을 토대로 식물과 예술, 사람의 감성을 연결하는 융합 예술교육을 만들고 싶었다”며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닌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고 회상했다.

창업 초기에는 지원사업의 특성상 많은 일을 시도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었다. 과거 수험생과 달리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은 미술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맞춤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최 대표는 초등 고학년부터 성인까지 식물세밀화가의 작업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재 ‘식물세밀화가의 노트 체험 클래스’를 펴냈다. 수업용 키트(Kit), 문구류, 텀블러, 머그컵 등 다양한 굿즈 상품을 개발했고 보태니컬 클래스, 공예·색채 심리 클래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보태니컬 클래스는 색연필 기초과정부터 꽃·열매·잎 그리기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취미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최 대표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언어로만 전달하기 보다는 그림을 병행하면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며 “그림 실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기본기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광주 동구 주관 ‘별별동구’ 사회공헌프로젝트에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하며 수강생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다. 수강생들은 “식물을 그리면서 나를 만날 수 있어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 “삶의 전환 시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더일러스트앤아트는 오는 20~25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에서 문화예술교육 하나로 진행된 ‘두려움을 묻어주는, 여기는 식물그림학교입니다’ 성과 공유회를 연다.

광주문화재단 공모사업인 이 프로그램은 지난 17주 동안 수강생들이 식물의 이해·관찰, 스토리텔링 구성, 식물그림 그리기와 컬러테스트 등의 수업에 참여해 배우면서 느끼는 감정의 흐름을 한편의 책으로 완성했다. 광주에서 처음 시도된 식물그림학교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시민들이 식물과 예술을 통해 스스로를 탐색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지연 대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적이다.

최 대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 3명을 채용하며 고용창출에 일조하기도 했다. 미술 교육 서비스, 출판, 전시 등 진로체험 교육도 진행하며 초·중학생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회사는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예술로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과 기업·기관의 워크숍·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꿈꾸고 있다.

최지연 대표는 “회사 대표이기 전에 ‘엄마’다. 직원들도 같은 부모이자 동료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일과 삶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며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아름답게 바꾼다’란 그 믿을 하나로 더일러스트앤아트는 오늘도 식물과 예술, 그리고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농기원, 차나무 부산물 활용 헬스케어 제품 개발

(주)우수와 미활용 자원 산업화
기술이전·공동연구 등 협력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주)우수와 차나무 부산물을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가 개발한 차꽃 추출물 기반 발효수면안대를 민간기업에 이전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차나무의 꽃·종자 등 미활용 자원을 기능성 헬스케어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활용 자원을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 개발,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차산업연구소는 차나무의 꽃과 종자 등 미활용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과 산업화 연구를 한층 강화해, 차 산업의 업사이클링 기반 조성과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주)우수 이돈관 대표는 “차산업연구소의 기술력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주)우수와 차나무 부산물을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 자원을 접목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상용화함으로써 지역 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정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연구기관의 기술이 현장 기업으로 확산

되는 좋은 사례로, 차나무의 미활용 자원을 고부가가치 헬스케어 소재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차 산업의 융복합 제품 개발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민 스님 초청 포럼

광주경총,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고담선원 주지 헤민 스님을 초청해 ‘기쁨을 삶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를 주제로 제1704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헤민 스님은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비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학교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선원 주지로 미국 햄프셔대학 종교학 교수와 마음치유학교 교장, 뉴욕 불광선원 부주지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젊은날의 깨달음’,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등 다수 발간했다. 특히 2012년 출간한 명상예시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누적 판매량 300만부를 넘어섰고 세계 26개국에 판권이 수출됐다.

이번 강연은 자료 없이 영상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영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환급

남광주·양동 등 6곳... 최대 2만원

광주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남광주·양동·봉선·운암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환급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11월 전통시장 은누리상품

권 환급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행사이다.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혜뜨는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월곡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6곳이며,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환급은 구매 금액의 30%를 은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